

광주도시공사, 상반기 ‘미래도시 골든타임’ 속도전

상무지구 평생주택 재개·AI 집적단지 등 성과 가시화 에너지·미래차·주거복지 추진…특별법 경영 특례 활용

광주도시공사가 2026년 상반기를 ‘광주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주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9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시의회에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제출하고, 올해를 ‘미래 가치를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의 원년으로 설정했다. 이어 4일 시의회 업무보고를 마친 공사는 상반기 로드맵을 공식화하고 성장동력 확보, 주거복지 실현, 시민감동 구현, 경영효율성 강화 등 4대 전략과제 이행에 본격 착수했다.

상반기 행보의 출발점은 주거 안정을 위한 현장 정상화다. 공사는 민간사업자의 경영 문제로 중단됐던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평생주택)’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달 중 변경협약 체결과 4월 내 공사 재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는 단순한 건설 재개를 넘어,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익적 가치

실현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첨단3지구 인공지능(AI)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다. 공사는 단지 내 각종 인종과 사용승인 절차를 상반기 내 완료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혁신 거점 인프라를 완비하고,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5월 이후에는 미래형 주거 모델과 전문경영 시스템 도입이 가속화된다. 공사는 남구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누구나 집’ 공급을 위한 리츠(REITs) 설립을 5월 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가 직접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해 약정을 체결하는 혁신적 사업 방식을 도입. 공공의 신뢰도를 기반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 서도 주택 공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본격화된다. 지난해 9월 광주시의회로부터 사업시행 동의안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는 사업 대상지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부처 협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도 상반기 중 가시화된다. 공사는 총 20MW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첨단3지구 연료전지 발전사업(1단계)’을 6월 착공 목표로 추진한다. 이는 ‘2045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도시공사의 중장기 에너지 전환 전략을 상징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시청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확충 사업도 상반기 내 의미 있는 공정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장사 행정 서비스 개선도 병행된다. 공사는 영락공원 3단계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연장지 2만7000기와 봉안당 3700기 설치 공사를 6월 내 준공해, 장사 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 친화적인 장사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2026년 상반기는 최근 발의된 ‘전남·광주특별법’ 등 대외적 기회 요인을 실질적인 경영 성과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특별법에 반영된 각종 특례를 적극 활용해 대규모 복합 개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수치가 아닌 시민들이 일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복지와 안전, 미래 산업의 변화를 현장에서 만들어내겠다”며 “상반기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해 호남권 대표 공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신보,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농협은행·광주은행 등
8개 금융기관과 협약
출연금 5억7500만원
69억1000만원 보증지원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최근 광주 광산구청에서 박병구 광산구청장, 염규송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종민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광산구와 NH농협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서광주새마을금고, 한마을새마을금고, 우산신협, 광주여흥신협, 광주하남신협 등 8개 금융기관이 출연한 총 5억7500만원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이들 통해 총 69억1000만원 규모의 보증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시행되는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재창업자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보증 한도를 상향해, 자금 수요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보다 두텁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최근 광주 광산구청에서 박병구 광산구청장, 염규송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종민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됐다. 아울러 ‘보증드림’ 앱을 활용한 비대면 보증 신청을 적극 안내해 보증 절차의 신속성과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광주신보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통해 경기 침체와 금융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산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보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광산구 소상공인은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중앙신협 새 이사장에 유근평씨 당선 “지역 발전 ‘튼튼한 동반자’ 역할 확대”

광주중앙신협등조합은 최근 실시된 임원선거에서 유근평 후보(사진)가 새 이사장으로 당선됐다고 9일 밝혔다.

유 이사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신협의 투명성과 신뢰를 한층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권익 보호와 금융 서비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 행복한 오늘과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삼례시오고등학교와 조선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유 이사장은 1988년 광주중앙신협에 입사해 서기를 시작으로 집금, 총무, 채권관리, 사업부, 지점장 등 전 부서와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이후 전무로 퇴직하기까지 34년간 신협에 몸담으며 조직 운영 전



반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퇴직 후에는 광주중앙신협 이사로 선출돼 활동해 왔다.

현재 유 이사장은 광주 북구 파크골프협회 총무이사외의 축협플뿌리정책포럼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신협 광주실무책임자협의회회장, 신협 전국 실무책임자협의회 부회장, 한국구제회계학회(신학협력)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부이사장 선거에서는 송철호 후보가 당선됐으며, 이사 선거(6명)에서는 최광원·김영운·황의순·양용호·최병우·이종률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감사(2명)에는 정용민 후보와 이윤섭 후보가 당선됐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9일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설맞이 농특산 직거래장터’를 열었다.

광주·전남 설맞이 직거래 상생장터 ‘성황’

시청 1층 시민홀서 우수 농축특산물 40여종 선보

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9일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열었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광주전남 통합을 통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 간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제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직거래장터에는 광주시, 전남 9개 시·군과 축산업협동조합(축협)이 참여해 40여종의 우수 농축특산물을 선보였으며, 총 매출액은 3000여만원을 기록했다.

직거래장터에서는 고광안 행정부시장과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등이 함께해 농가를 격려했으며, 광주시 공직자들도 구매에 동참해 지역 간 협력 분위기 조성에 함께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이 함께 상생하는 통합의 의미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중흥그룹, 설 앞두고 협력업체 대금 조기지급

1000억원 규모 현금으로

중흥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공사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대금은 약 1000억원 규모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해근 중흥건설·중흥토건 총괄 사장은 “이번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업체들이 임금 및 자재 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경기가 어렵더라도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흥그룹은 지난해 추석 명절 전에도 공사대금 1100억원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중흥그룹은 매년 우수협력업체를 발굴해 각종 인센티브 및 계약이행보증보험 면제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포스코그룹, 협력사 대금 20일 앞당겨 지급

포스코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래대금 4216억원을 최대 20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포스코와 포스코플루우는 오는 13일까지 5일 간 총 3300억원을 조기 지급하며 포스코이앤씨는 당초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지급 예정이던 916억원을 12일 하루에 전액 현금으로 일괄 지급한다.

포스코그룹은 협력사들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년 설과 명절 전 거래 대금을 앞당겨 지급해 왔는데 지난해도 설에 3520억원, 추석에 4640억원을 조기 집행했다.

포스코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중소기업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으며 2017년 11월부터는 증권기업 대금 결제에도 전액 현금지급을 적용해 현금 결제 해액이 2.3차 거래사까지 확산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포스코광양제철소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4일 지역배려 계층에 ‘희망의 쌀’ 1340포를 전달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

금융위, 저신용자 재기지원 카드 2종 출시

후불교통 월 10만원→최대 30만원…내달 23일부터 신청

신용도와 관계 없이 연체가 없다면 체크카드에 월 10만원 한도의 후불교통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신용 개인사업자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발급 가능한 신용카드로 출시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재기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확정했다.

현재 연체가 없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후불교통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를 해소하고 있더라도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전까지는 민간 금융사가 제공하는 신용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최초 월 이용한도 10만원이 부여되고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지속해 정상 상환하면 3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 결제도 허용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의 디자인이나 혜택이 자사의 다른 체크카드와 차별되지 않도록 신경 쓸 예정이다.

오는 3월 23일부터 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도 오는 2월 20일 출시된다.

이 상품은 신용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라면 서금융 보증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있더라도 영업을 계속하려면 원재료 구매 지출이 계속돼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품인 만큼 월 이용 한도를 기존 개인 대상 햇살론 카드(200만~300만원) 보다 많은 월 300만~500만원으로 설정했다.

단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리볼빙·결제대금 연기 등은 이용할 수 없고 할부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된다.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며 9개 카드사가 2000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개인사업자 총 2만5000~3만4000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지난해 대통령님의 지시를 받아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다양한 과제를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번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가 개인사업자 햇살론이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